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05 대중교통 안전 편



CONTENTS

- 01 **SAFETY GRAPHIC**
안전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교통사고 현황

- 02 **SAFETY NOW**
'대중'을 위한 대중교통, '모두'를 위한 안전

- 03 **INTERVIEW**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정우 교육팀장 & 박선형 광고홍보팀장

- 04 **SAFETY THINK**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 05 **SAFETY CHECK**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

- 06 **SAFETY TIP**
세종시 환상형 간선급행버스(BRT)

- 07 **SAFETY MANUAL**
버스 이용 시 기억해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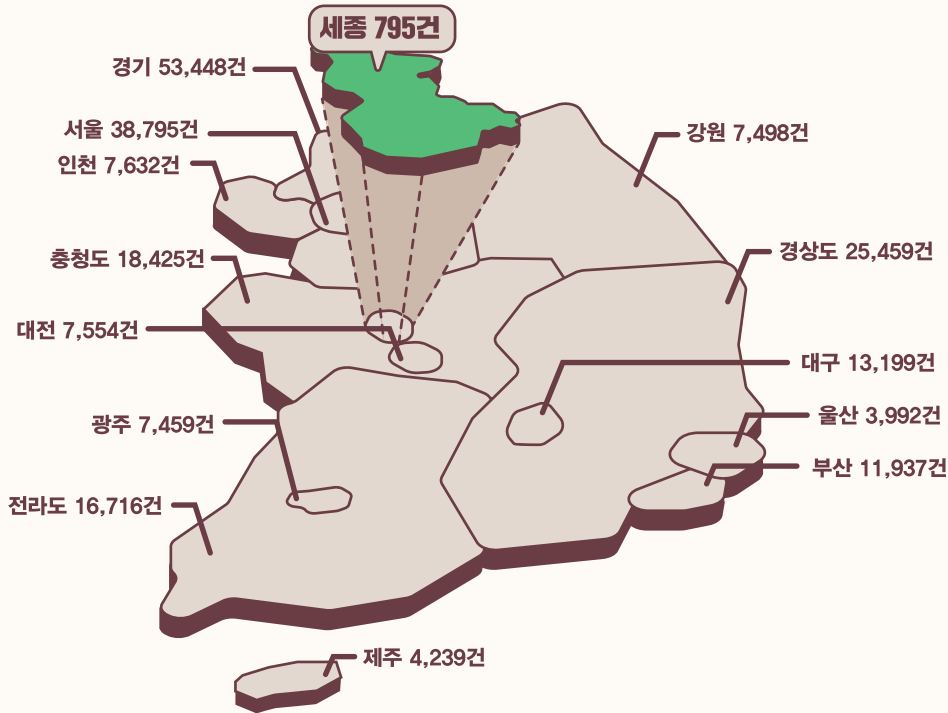
- 08 **코로나19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안전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교통사고 현황

안전한 습관으로 만드는 무사고! (2018년 기준)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무단횡단을 하고, 운전자는 운전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익숙함에 머물기보다 안전한

전국 교통사고 현황



세종시 교통사

안전띠 미



착용 0.36%



안전띠 미

SAFETY APP 사고를 부르는 교통위반, 바로 신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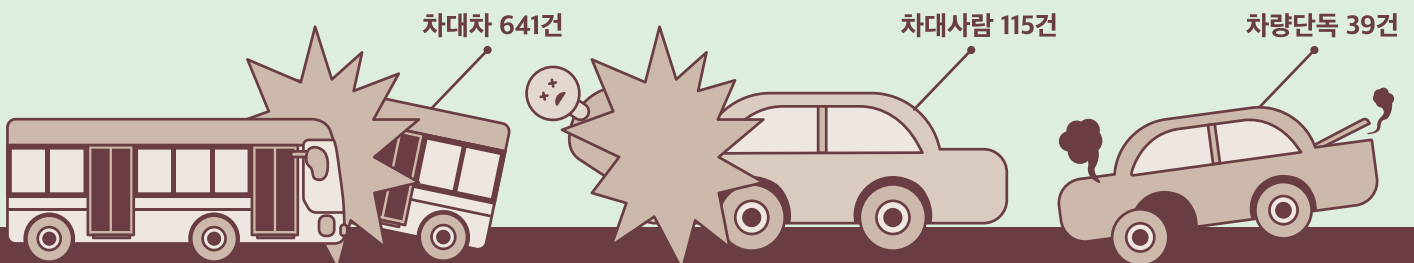


신호위반, 인도·횡단보도·BRT 전용도로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의 교통위반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나와 우리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위반 사항은 스마트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꼭 신고해주세요!

android iOS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8 세종시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보행자는 맞은편 차도를 달려오는 자동차의 속도가 '이만하면 괜찮겠지' 싶어서 정체 중인 도로 위에서 '천천히 달리고 있으니 괜찮겠지' 싶어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도로, 늘 걸어다니는 길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다가 언제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습관으로 교통사고가 '0'이 될 때까지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세종시 교통사고 실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건수 115건 중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횡단 중 51건



기타 40건



차도 통행 중 1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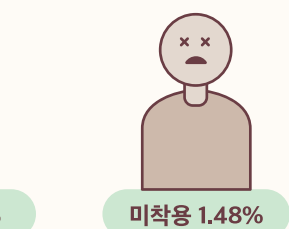


보도 통행 중 6건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 6건

착용여부별 사망률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건수 128건



부상자 136명



사망자 8명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건수 49건



부상자 61명



사망자 0명

2018 세종시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함께 타는 편리함, 안전까지 함께 가요

버스 이용 시 기억해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중교통 가운데 하나인 버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시내·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6,904건으로 10,692명이 생명을 잃거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께 이용하는 편리한 대중교통이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무심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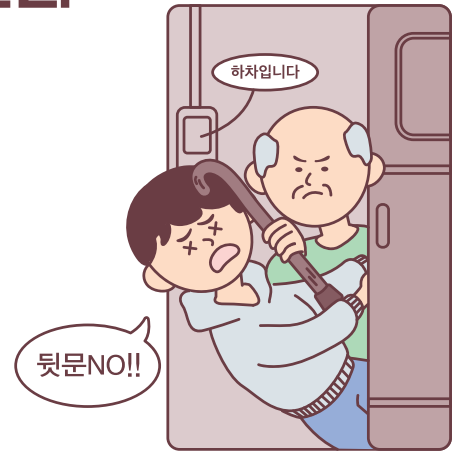
모두가 함께 타는 편리함
안전이라는 목적지까지 함께 가려면
꼭 기억해주세요.

때와 장소를 가릴수록 안전!



급하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면 다른 승객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또 버스가 보인다고 차도에 미리 나와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리면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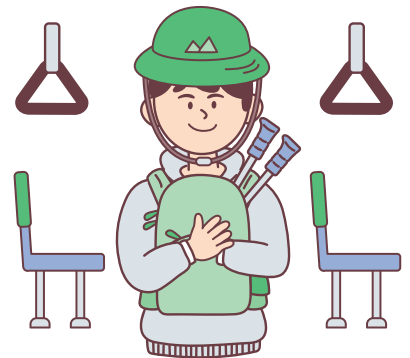
뒷문으로 승차하면 내리는 승객과 뒤엉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내린 뒤에 교통카드를 태그
(인식하기 위해 다시 타려고 하면 닫히는 문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하차 전 미리 태그(인식)해 주세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안전'을 꼭 잡으세요!



탑승 전에는 카드 또는 요금을 미리 준비하고, 승차 후에는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또 자리를
이동하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버스가 멈춘 뒤에 일어나야 합니다. 출발 또는 급정거 시 넘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허그(Back hug)? 버스에선 안전한 백허그(Bag hu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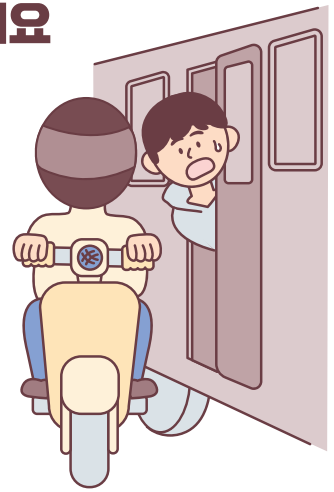
봄비는 버스 안에서는 백팩을 앞으로 메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소지품 걸림 등의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용 스틱을 꽂은 배낭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카페 아니죠, 버스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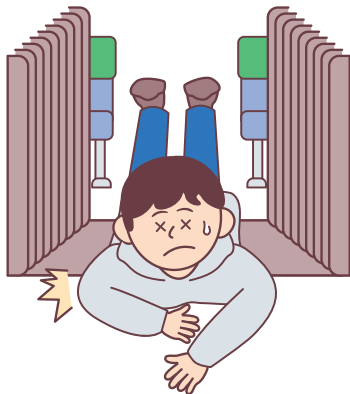
음료나 음식물을 들고 탑승하지 마세요. 작은 충격에도 떨어뜨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 지나가게 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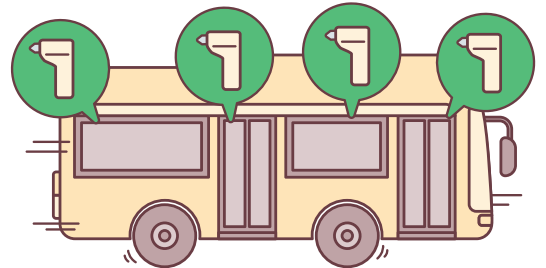
하차벨을 누르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내리세요. 버스에서 하차할 때는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없는지 좌우를 살피고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굴절 부분에 서면 안전이 꺾일 수 있어요!



굴절버스의 굴절 부분은 운행 시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좌석에 앉거나 굴절 부분을 제외한 여유 공간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주세요.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망치'가 있다?!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뜨린 후 탈출하세요. 반드시 비상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함부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편리함이 가득한 달콤한 택시가 온다!

세종시 플랫폼 택시, 마카롱택시

서비스 오픈

2020년 3월 2일(월) 14시 이용요금(운임료 별도): 즉시 호출 1,000원 /
예약 호출 2,000원(영유아 카시트 서비스 포함)

이용방법

앱/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카롱택시' 검색 > 마카롱택시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카드등록 필수) > 쿠폰 등록 > 호출하기(예약/실시간 호출)

특이사항

카시트, 스마트폰 충전, 차량 내부 방향제 설치, 불필요한 대화 없음,
종사자 전문 교육 이수, 네비게이션 준수

마카롱택시 특별 이벤트

세종시민을 위한 특별 할인쿠폰(2,800원) 100% 제공!
마카롱택시 앱 쿠폰함에서 '마카롱세종'을 입력하세요! 신규회원이라면
웰컴쿠폰(5,000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종통합콜(044-862-5000) 20.03.02(월)부터 1,000원 호출비 부과

* 예약 호출은 현재 시간 기준 2시간 후부터 최대 7일까지 예약 가능



승객과 운전자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택시 이용 방법

택시는 지하철과 버스 못지 않게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자도 승객도 안전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고개를 가웃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택시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하고 승객은 안전하게 이용한다면 승객과 운전자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택시 이용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면

- 택시의 차량 번호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유합니다.
- 운전석 옆자리 보다 뒷좌석에 앉으세요.
- 자동차운수사업용 등록 차량에만 부여되는 '아', '바', '사', '자'를 확인하세요.
- 탑승 중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자에게 폭언, 폭행은 금물입니다.

안전운전에 집중해 주세요

- 근무 중에도 적절한 휴식은 필수! 스트레칭을 곁들인다면 더 좋겠죠?
- 승객을 태울 때는 조명이 밝은 곳, 안전한 곳에서 태워주세요.
- 늦은 시간, 거리가 한산해도 규정 속도를 지켜주세요.
-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급출발·급차로 변경하지 않기 등 좋은 습관이 안전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SAFETY NOW | '대중'을 위한 대중교통, '모두'를 위한 안전

함께하면 더 튼튼해지는 안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은 2018년 기준 약 267만 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일까.

2년 전 겨울, 광화문에서 퇴근하던 한 장애인은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샅에는 주위 속에서 1시간 남짓한 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버스에 오르려는데 운전기사로부터 "퇴근 시간에 왜 휠체어를 끌고 나와 버스를 타려는 거냐"는 편지를 들어야 했다. 주위의 일부 승객 역시 '다른 거 타면 되지 웬 민폐냐', '바쁘는데 몇 분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고 투덜거렸다. 장애인은 직업이 없을 거라는 편견, 당연히 출퇴근도 하지 않을 거라는 두 겹의 편견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꼭두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들을 볼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만 시선을 돌려 임산부 배려석을 보자. 임산부 배려석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 사고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단순히 배려의 문제를 넘어 성별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임산부 배려석의 주인 또한 분명 우리 곁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교통약자법이다.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에 설치된 교통약자 배려석과 교통약자구역일 것이다. 조금 멀리 나가면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제도를 얼마나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에는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여기에 '대중교통'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 대중교통은 다수를 위한 편의시설이고, 소외되는 사람 또한 없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이라는 '수많은 사람의 무리'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었다. 그간 소외되었던 '누군가가 보이지 않아서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왜 보이지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마음으로 넓힌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안전은 더욱 튼튼해지고 도시 공기는 더 맑아질 것이다.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잠깐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배려 조금 천천히 가면 함께,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운전자

- 운전 중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 집중해 주세요.
- 횡단보도에서 걸음이 느린 고령자나 임산부, 어린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 어린이 통학차량 또는 장애인 탑승 차량을 만나면 앞지르거나 과속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지하철 · 기차

- 승하차 시 교통약자가 먼저 승하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또 엘리베이터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승객 또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나 고령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 교통약자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가 앉을 수 있도록 비워두거나 양보해 주세요.

버스

- 유모차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탑승할 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저상버스 운전자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사용법을 미리 익혀 두고 교통약자 승차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좌: 세종도시교통공사 박선형 광고홍보팀장 / 우: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정우 교육팀장

INTERVIEW |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정우 교육팀장 & 박선형 광고홍보팀장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 타 봄(春)?!

살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요즘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봄의 교향곡은 황홀경 그 자체인데요. 완연한 봄은 왔지만 어지러운 코로나 시국에 봄을 제대로 느끼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울트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자유는 대중교통이 주는 최고의 장점이지요.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는 세종시 교통수단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정우 교육팀장 & 박선형 홍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 (이하 작가) | 먼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정우 교육팀장 & 박선형 광고홍보팀장 (이하 팀장) |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017년 1월 5일 설립하여 4월 13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만 3주년이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 중심 대중교통 전문기업이지요. 또,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는 최초의 지방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BRT 라인 2개 노선, 광역/시내/마을버스 48개 노선,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교통수요의 45%인 80만 명이 매월 교통공사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누적 이용객은 2020년 3월 말까지 누적이용객이 약 1,800만 명에 달합니다. 버스 운행 이외에는 정류장 관리사업,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 CNG 충전소 운영, 대중교통 시설이용 광고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 | 세종시에서 올해를 대중교통 개선의 해로 선포하셨다고 들었는데, 도시교통공사에서 올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을까요?

팀장 | 올해 초 1월 23일부터 BRT 900번 내부 순환망을 완전히 개통하였고, 900번과 990번 노선에 일반버스보다 2배나 많은 수송량을 자랑하는 전기 굴절버스 4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8대를 추가 도입하여 시민들의 수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읍면지역 대중교통 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두루타 서비스를 장군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금남면으로 확장 운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세종시 전 지역으로 운행하여 읍면 노선을 획기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작가 | 전기 굴절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보니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 버스이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팀장 | 전기 굴절버스는 일반 버스 수송량의 두 배가 되는 84인승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무공해 버스이기도 하며 연료비도 CNG 버스와 비교했을 때 약 65%가 저렴합니다. 또, 전기 굴절버스에는 문이 3개가 있어 출입이 용이하고, 내부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고정 장치, 휴대전화 충전기, 안심벨, 소화물 적재함, 전자노선도, 침팬 LCD 모니터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위 감지장치, 장애물 경고장치 등 지하철 수준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기 굴절버스를 대상으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를 받을 예정입니다.

작가 |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팀장 |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안전을 위해 승무사원들의 급정지, 급출발 방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버스 차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교통약자인 노약자나 임신부 그리고 장애인들이 내리실 때 충분한 하차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안심벨을 설치해 놨는데, 이 벨은 일반벨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심벨을 누르면 승무사원들이 교통약자임을 확인하고 조금 더 정차시간을 두어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배려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심벨 위치도 교통약자들이 누르기 쉽도록 배치되어 있고요, 모든 버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직접 버스를 가지고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영상교육과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 | 세종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팀장 | 승객들은 버스가 원하는 목적지에 완전히 정차한 뒤에 일어서서 내려야 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버스가 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일어서서 내릴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 하게 되면 차내 전도사고로 이어져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하차했는데 하차 태그를 찍지 않았다고 무리하게 버스 안으로 손을 내밀어 태그를 찍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행동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서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차도로 내려와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버스가 자칫 미끄러질 수도 있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강장 위에서 안전하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 | 혹시 업무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잊지 못할 추억담이 있으실까요?

팀장 | 2017년 5월 26일 1004번 버스가 신설개통 예정이었는데요. 전날 밤 사장님 이하 사무직 직원 15명 정도가 버스 개통을 위해 직접 안전손잡이를 달고, 행선판을 붙이는 등 개통준비를 위해 밤을 꼬박 샐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다음 날 개통이 어려웠을 텐데요, 다음 날 차질없이 개통하게 돼 흐뭇하고, 그 버스 이름도 1004번 버스라서 더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 | 마지막으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세종시민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팀장 | 대중교통은 여러분들의 일상이며 생활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470여 명의 임직원들은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교통은 최초 설립부터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SAFETY THINK

기다려야 하는 서비스? 찾아오는 서비스! 어디서나 누구든지 부르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두루타'

'두루타'는 세종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다. 기존의 마을버스가 운행시간과 노선을 정해두고 정해진 시간과 도로를 따라 운행했다면, 두루타 버스는 이용 1시간 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을회관에 콜백시스템을 도입해 전화기가 없거나 이용방법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 늦은 시간 안심귀가를 위한 라이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두루타는 올해부터 금남면까지 확대 운영되고, 향후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더욱 똑똑하고 안전한 맞춤형 서비스를 세종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 오후라(오세이프 에디터)

부르면 빨리 와요!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이용방법

- **운영시간** 07:00~20:00
- **이용방법** 이용시간 최소 1시간 전 콜센터 예약
(콜센터 운영시간: 06:30~20:30)
- **운임요금** 500원(기존 교통카드 결제 가능, 환승 불가능)
- **이용문의** 1644-8255
하봉저수지, 송정리세종요양병원은
일요일만 운행
자세한 운행 정보는 1644-8255로 문의



알아두세요! 개인이동수단을 버스에 휴대할 수 있어요!

세종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버스 내 개인이동수단 허용을 포함한 운송약관 개정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운송약관은 시청 홈페이지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 휴대 허용
-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kg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kg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해져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
-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07~09시, 17~19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SAFETY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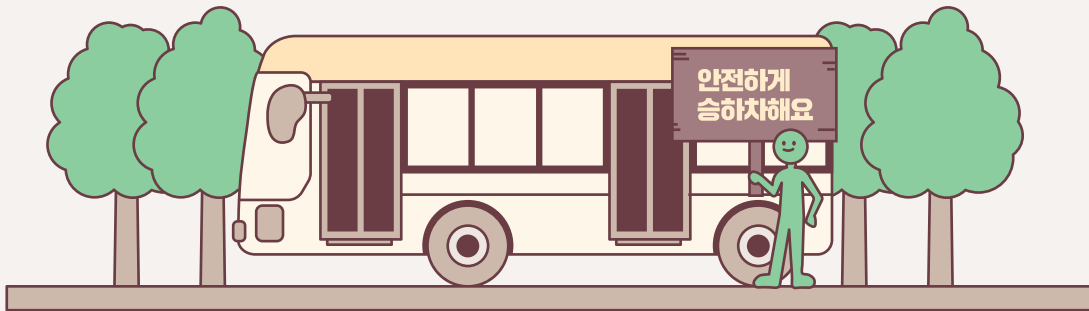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안전하게 키워 주세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어린이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한편, 안전습관을 기르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를 운영 중이다. 세종시 거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기르기 위함인 것.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디자인으로 내·외부를 랩핑한 안전 테마버스가 직접 교육기관으로 찾아가 ‘대중교통 안전하게 이용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교통안전교육은 ‘버스, 승합차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영상 시청과 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예절,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의 차내 교육과 버스 사각지대 직접 체험하기, 안전한 버스 이용을 약속하는 핀벤티 만들기 등의 체험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체험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색연필과 함께 ‘12가지 유형의 안전한 버스이용수칙 색칠종이’를 지급해 어린이들이 체험교육 후에도 스스로 학습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리 | 오호라(오세이프 에디터)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

- **일시** 매주 수요일(주 1회/월 4회)
- **장소** 체험신청 교육기관
- **대상** 5~9세(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 **인원** 30명 이내
- **문의** 세종도시교통공사 044-850-0233
- **내용** 내부 교육: 교통안전 영상 시청/발표, 카시트 안전벨트 착용 방법, 통학차량 안전체험 (위험 시 행동요령), 대중교통 에티켓 등
- 외부 교육: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핀벤티 만들기 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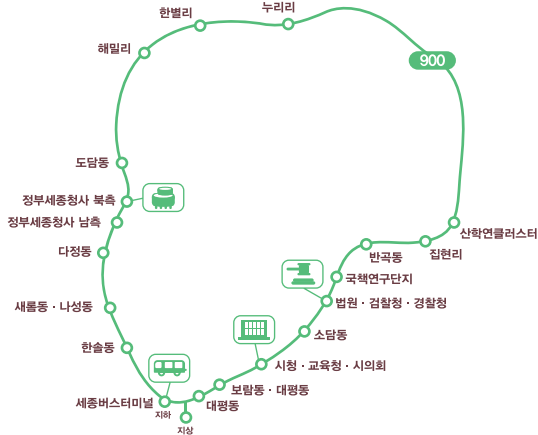
스마트시티 세종에서 시작하는 '친환경' 세종시 환상형 간선급행버스(BRT)

세종시 환상형 간선급행버스(BRT) 내부 순환망(900번)이 완전 개통했습니다. 2020년을 '대중교통 개선의 해'로 삼고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세종시의 첫 번째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대전시 반석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충북 오송역까지 운행되는 990번 BRT와 세종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반곡동을 내부순환 운영하는 900번에 전국 최초로 전기 굴절버스가 도입되고, 지난 1월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세종의

교통망을 품은 완벽한 교통 순환체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근 도시를 더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충남·충북과 공동으로 광역 BRT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어서 이번 내부 순환망 완전 개통과 전기 굴절버스용 차량 기체가 납품되는 등, BRT 내부순환망이 완전 개통되면서 세종시의 교통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또 전기 굴절버스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종 안에 편리, 나와 나의 연결고리! 세종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이어주는 23Km의 '고리'

세종시 환상형 간선급행버스(BRT) 내부 순환망은 1~6생활권을 고리형태로 잇는 23km 구간으로 2016년 1월 6일 개통 이후 4년여 만에 완전 개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6생활권 등 일부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양방향 편도 운행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반곡동 주민들이 오송역으로 가는데 약 30km를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순환망(900번) 완전 개통으로 1~6생활권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약 8km(10분) 단축된 것은 물론, 대전과 오송을 오가는 광역 BRT(990번, 1001번 등)를 연결하는 정류장을 신설해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전기 굴절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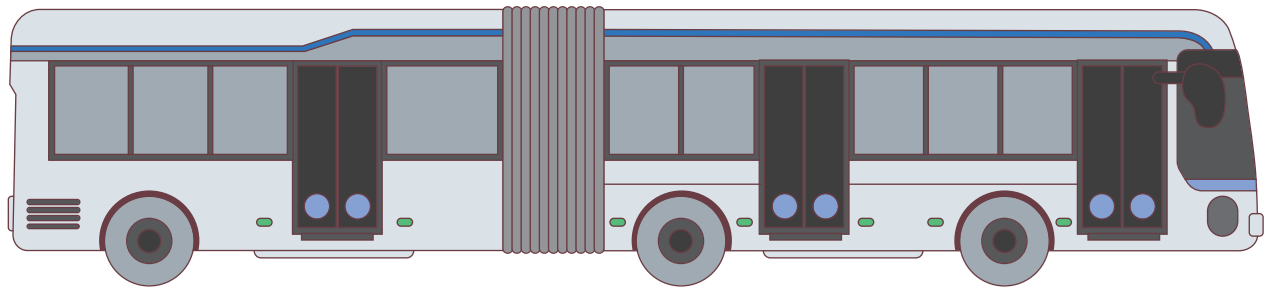
친환경 전기 굴절버스는 한번 완전 충전하면 2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버스보다 탑승 정원이 30여 명 늘었을 뿐 아니라 전기 동력을 사용하고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해 대기오염을 줄였습니다. 또 가솔 엔진 사운드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차선이탈 경고, 주변 시야 감지장치, 전방 장애물 경고 등 첨단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과 최첨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기 굴절버스는 내부에 승객용 휴대전화 충전기, 무모터 고정장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굴절버스

- 차체 길이 18,23m 일반 버스보다 5~7m가량 길어!
-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탑재로 완전 충전까지 72분!
- 한 번 충전하면 220km 주행(73km/h 정속 시, 공차, 공조 미가동)
- 좌석 46석, 입석 38석 등 최대 84명까지 승수 가능!
- 첨단 안전시설: 차선미달경고장치, 전자제어 제동시스템, 전방장애물 경고장치 등
- 편의시설: 미세먼지 차단 필터, 휴대폰 충전기,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등

세종시 버스 요금

구분	운임			비고		
	일반	청소년	어린이			
BRT	900	현금: 1,200원 카드: 1,150원	현금: 950원 카드: 910원	현금: 600원 카드: 550원	*할인 요율 청소년: 20% 어린이: 50% *성인 동반 소아 (6세 미만) 3인까지 무료	
	990	시내	현금: 1,200원 카드: 1,150원	현금: 950원 카드: 910원		현금: 600원 카드: 550원
		시외 (세종시→오송역·반석역)	현금: 1,600원 카드: 1,550원	현금: 1,250원 카드: 1,200원		현금: 1,250원 카드: 1,200원
		시외 (오송역→반석역)	현금: 1,250원 카드: 1,200원	현금: 1,250원 카드: 1,200원		현금: 1,250원 카드: 1,200원
시내 버스	1004 / 1005	현금: 1,200원~1,600원 카드: 1,150원~1,550원	현금: 950원~1,250원 카드: 910원~1,200원	현금: 600원~800원 카드: 550원~750원		
	201 / 203 / 221 / 11-12 / 13	현금: 1,200원 카드: 1,150원	현금: 950원 카드: 910원	현금: 600원 카드: 550원		
	300	현금: 1,200원 카드: 1,150원	현금: 950원 카드: 910원	현금: 600원 카드: 550원		
	910	현금: 1,200원~2,000원 카드: 1,150원~1,950원	현금: 950원~1,600원 카드: 910원~1,560원	현금: 600원~1,000원 카드: 550원~950원		
마을버스	현금: 1,100원 카드: 1,050원	현금: 850원 카드: 810원	현금: 500원 카드: 450원			



세종 안에 즐길거리, 나와 나의 추억거리! 환경도 지키고 추억도 만드는 굴절버스 타고, 타고!

전기 굴절버스를 타고 넓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세종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친환경과 첨단 운행 시스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체험교육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돌아오는 주립에는 전기 굴절버스를 타고 세종시의 즐길거리를 둘러보며 가족만의 추억거리도 만들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보세요!

굴절버스(900번-990번) 타고 떠나는 세종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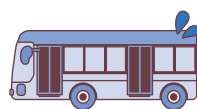
데마버스와 함께 계절을 만나요

봄꽃버스 | 4월 중순



따스한 봄날, 세종시의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봄꽃버스'를 타보세요. 27가지 노선 중 마음 가는 대로, 기분 가는 대로 하나를 골라 여행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속에도 봄빛이 가득! 짧지만 한 봄이지만 봄꽃버스와 함께라면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버스 | 7월 말 ~ 8월 중순



여름 휴가철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놀이입니다. 고복저수지 야외수영장으로 놀러갈 수 있는 '물놀이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한 걸음에 시원한 수영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봄꽃버스와 물놀이버스의 정확한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 등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www.gctj.co.kr)에서 확인하세요!

COVER STORY

안전과 편의, 그리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하여!

올해는 세종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인 BRT 환상형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고, 최첨단 전기 굴절버스의 투입,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의 확대 운영, 정류장 개선 등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의 다섯 번째 이야기, '대중교통 안전'편에서는 세종시의 다양한 대중교통 소개와 안전한 이용방법을 담아 보았습니다. 본 매거진을 통해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길 기대합니다.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발행일 2020년 04월

편집위원 심준우 / 민경환 / 유정
에디터 오호라
취재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디자이너 오수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